보성세계차엑스포 축제형으로 치른다

K-pop 빅 콘서트·군민의 날·체육행사 등
4월 국제행사 규모… '제2의 부흥기' 기대

보성군이 코로나로 지친 국민이 함께 즐기며 건강해질 수 있는 '축제형 엑스포'를 통해 '보성차 제2의 부흥기'를 열겠다는 각오로 '2022 제10회 보성세계차 EXPO'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2022 제10회 보성세계차 EXPO'가 국제행사 규모로 개최된다.

보성세계차EXPO는 고려시대 차를 만들어 국가에 공납했던 '다소'를 비롯해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보성 차의 역사와 한반도 차 역사를 조명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차 문화와 차 산업뿐만 아니라 세계차 문화와 산업의 현주소를 체험해보는 시간과 함께 앞으로 우리 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전시관과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세계차 문화 교류전, 수출 상담회, 세계 차 품평대회, 세계 티포럼, 대한민국 다향예술대전 등의 학술·문화 행사와 티 테라피, 차밭 힐링 트래킹, 오감만족 티 스탬프 랠리 등 보성다향대축제와 보성세계차EXPO의 다양한 체험형 행사가 진행된다.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K-Pop 빅 콘서트도 열린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이 참여해 오랫동안 코로나19에 지친 사람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편제보성소리축제에서는 전국판소리 고수·경연대회, KBS국악한마당 등의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의 치유와 화합의 장이 될 군민의 날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보성읍 시가지를 행진하는 퍼펫 퍼레이드, 세계차EXPO 개막식, 체육행사 등 다채로운 화합 한마당이 펼쳐진다.

보성은 드넓은 계단식 차밭, 가슴 시원한 평지형 차밭, 그리고 아름다운 율포해변 등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곳이다. 2022 보성세계차EXPO는 자연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보성다향대축제 행사로 티 테라피, 차밭 힐링 트래킹, 오감만족 티 스탬프 랠리 등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율포해변에서는 해양 녹차 치유관광 체험행사와, 웰니스 건강·휴양프로그램, 차박·캠핑, 율포해변 어린이 활어 잡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그 밖에도 다향보성전국장사씨름대회, 보성녹차마라톤, 전남 우수 분재대전 등 부대행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세계차엑스포 TF팀을 구성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축제형 엑스포로 개최해 차문화 축제를 만들고 보성 차의 도약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신산업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미래 100년 시민과 준비 2050 탄소중립 실현 총력"

2022 새해설계

권오봉 여수시장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여수 미래 100년을 함께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최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중심'과 '균형발전'을 핵심가치로 여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밝혔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범시민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역량 결집과 성공개최 붐을 조성하고 외국 참여 유치에 나선다.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남해안남중권으로 개최도시를 먼저 선정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여수국가산단과 시민의 힘을 함께 모아나갈 방침이다.

여수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임신부 산전검진 교통비 10만 원과 산후건강관리비 20만 원도 지원한다.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은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 확대한다.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경도해양관광단지,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챌린지파크, 화정면 개도 웰니스 테마 관광지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로 관광객들을 매료시킬 계획이다.

여수시는 여수산단 복합문화센터, 석유화학 여수안전체험교육장 건립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올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여수산단기업 지역인재채용 시민가점제 협약을 현재 17개에서 30개 이상 기업으로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선다.

여천역 주변, 소제, 죽림1, 만흥지구 택지개발로 시민 수요와 미래도시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남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다.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과 도서민 1,000원 여객선 운임, 도서민 차량 도선 운임지원으로 교통비 부담을 확 낮출 계획이다.

여수시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확대 보급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2,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권 시장은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먼저 준비해야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여수 발전의 긴 안목으로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여수 미래 100년을 함께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순천, 사업비 13억원 투입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순천시가 농촌의 고령화·여성화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사업을 확대한다.

순천시는 지난해 국비 6억 원을 포함해 총 1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 3월 개소를 목표로 외서면 화전리에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힘쓰고 있다.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건립되면 지금까지 승주읍에 있는 북부 임대사업소와 덕월동에 있는 남부 임대사업소를 이용해야 했던 외서·낙안·송광면 지역 주민들의 농기계 이용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3월부터 5월, 10월과 11월 등 농번기에는 농민들이 토요일에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서비스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순천시는 고령·여성 농업인이 다루기 편한 소형 농기계 지원도 확대한다. 고령·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666농가에 8억3,0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친화형 다목적 전기운반차 구입 80농가에 3억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경운기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등화장치 지원 등 농업기계 구입 지원과 함께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도 지원한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구례군이 주민들이 제기한 건의사항 현장을 찾아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 민원현장서 답을 찾다

군민 공감대화 건의사항 해결 소통 강화

구례군이 주민들이 제기한 건의사항 현장을 찾아 민원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구례군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실시한 군민공감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 중 직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건에 대해 총 44개소를 최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건의자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다수 참여해 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군에서는 담당 부서장, 읍·면장 등이 참석해 현장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의사항 대부분이 재정이 수반되는 내용으로 군 재정여건이 어려워 '바로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나 김 군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재해위험, 시급성이 급박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1회 추경에 적극 반영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안들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주민들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정은 언제나 열려있으므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

광양, 지역업체 보호 계약업무 지침 시달

광양시가 최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과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둔 '2022년 계약업무 운영지침'을 마련해 전 부서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계약업무 운영지침은 지역 내 제한 입찰 한도, 소규모 수의계약 요령, 계약정보 공개, 보조사업 입찰 대행 확대 추진, 입찰·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 직원의 공유와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특히 2,000만 원 이하 소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시 홈페이지와 공직 내부 게시판에 계약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쏠림이 없도록 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곡성 금의전원마을 주민들, 성금 전달

곡성군 옥과면 금의전원마을 주민들이 최근 옥과면사무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0만원과 라면 20박스를 전달했다.

주민대표 정판수 씨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느 때 보다 힘든 겨울을 지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김재만 옥과면장은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많은 도움으로 더욱 희망찬 새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과 후원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구례자연드림씨앗재단, 장학금 후원

(재)자연드림씨앗재단이 최근 구례군청에서 대학생 13명, 중·고등학생 16명에게 장학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씨앗재단은 2012년 구례군과 장학금 지급 협약을 체결한 이후 10년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420명에게 장학금 3억7,000만 원을 후원했다.

씨앗재단 관계자는 "지역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학금 후원을 계속해 씨앗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씨앗재단은 구례군의 인구증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환원사업, 구례군보건의료원 산부인과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

순천중·고 총동창장학회, 장학금 전달

순천중·고 총동창장학회가 최근 1,850만 원의 장학금을 재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번 장학금은 우수인재 및 사회배려자, 체육특기 장학금으로 구분해 재학생 61명에게 전달했다.

이재욱 이사장은 전달식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면학과 체육특기 등 기량을 발휘해준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동창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후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중·고 총동창장학회는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및 일취월장 장학금, 기탁 장학금 등으로 매년 6,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2억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